

[사회]



■ 최인규 광주지법 장흥지원장의 특별한 인연

“나를 판사로 키운 건 광주일보”

최 지원장은 “당시엔 대학에 합격한 것이 가족들에게 죄스러울 만큼 형편이 어려웠다”며 “두 번의 도전 끝에 꿈에도 그리던 합격증을 손에 쥐었지만 등록을 하지 못한 채 발을 굴려야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최 지원장이 ‘진학 포기’라는 절망감을 느낄 무렵 뜻밖의 희망이 찾아왔다. 그의 딱한 사정을 안 지인들이 신문사에 제보를 한 것이다.

제보를 받은 광주일보는 1985년 1월 25일자 신문을 통해 ‘입학금에 해당하는 의지의 법학도’란 제목으로 굵직한 기사를 실었다. 학력고사에 315점을 받은 수재가 서울대에



1985년 1월 25일 광주일보 10면 기사. ‘의지의 법학도’란 제목의 이 기사를 통해 최인규 장흥지원장의 인티까운 사연이 독자들에게 소개됐다.

업차 사우디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기사를 접한 것으로 안다”며 “가난과 신체적 어려움 속에서도 의지를 잃지 않은 모습에 선뜻 후원자로 나서준 것이 너무도 큰 힘이 됐다”고 회상했다.

그는 또 “당시 광주일보에 기사가 실리지 않았다면 판사가 된 현재의 모습은 상상하기조차 힘들다”며 “지금도 마음이 흐트러질 때면 당시 스크랩한 기사를 꺼내보며 마음을 다잡곤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지역 사회로부터 받은 도움에 보답하기 위해 사라도 희망의 쌔를 심어주는 법조인의 길을 가겠다”며 “앞으로 광주일보가 지역 인재육성이나 어려운 이웃들에게 관심을 쏟는 감로수 역할을 해꿔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장흥=최경호기자 choice@

서울대 합격 등록금 없어 포기할 처지 광주일보에 보도되자 성금·후원 ‘밀물’ “지역 인재육성의 든든한 버팀목 기대”

합격하고도 등록금이 없어 진학을 포기할 처지에 놓여 있다는 내용이었다. 또 소아마비로 왼쪽 발을 저는

신체적 어려움과 궁핍한 가정환경 속에서도 흘어머니를 극진히 모시는 ‘소문난 효자’라는 점 등도 독자들에게 상세히 소개됐다.

기사의 효과는 대단했다. 그의 사연이 소개된 다음날부터 각지에서 성금과 후원이 이따랐다. 우선 이연술 당시 화니백화점 회장 등 2명이 등록금 전액을 각각 기탁했다. 순간

최 지원장은 “김 회장이 당시 사

적으로 등록금은 물론, 6개월치 학비와 생활비가 마련됐다.

또 강진 출신의 사업가 김용복 (75·영동농장 대표) 회장은 평생 후원을 자처하고 나섰다. 김 회장은 이

후 최 지원장의 사법고시 합격과 결혼 등 삶의 전환점마다 ‘불심양면’

으로 뒷바라지를 해줬다. 초등학교

6학년 때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아버

지를 잊은 최 지원장의 입장에선 ‘정

신적 아버지’를 잊은 격이었다.

최 지원장은 “김 회장이 당시 사

을 다잡고 한다”고 덧붙였다.

광주지법 판사들 “세상 속으로”

‘25일 법의 날’ 앞두고 모교방문 강의 등 행사

“어린이들의 법원 견학과 판사들의 모교방문 강의 등을 통해 ‘솔로 몬의 지혜’를 널리 알린다.”

법원이 오는 25일 ‘제46회 법의 날’을 앞두고 광주·전남지역 곳곳에서 다양한 행사를 마련했다.

광주지법(법원장 오세욱)은

20~26일을 ‘법의 날’ 기념주간으로 정하고 ▲법관 모교방문 특강 ▲심 어린이 법원 견학 ▲사랑의 헌혈

▲중고 도서 기증 ▲무료급식 행사 등 다양한 이벤트를 연다.

법원은 우선 학생들을 대상으로

사법부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없애

고, 법치에 대한 신뢰를 심어주기 위해 모교방문 특강을 마련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이우용 부장판사가 모교인 장성북중학교에서 강연하는 것을 비롯, 김종복 판사와 모성준 판사가 각각 진흥고와 광주고에서 강단에 섰다.

지법은 또 신안군 거거도의 초등 학생 17명과 중학생 8명을 초청, 법원 견학행사를 연다. 이날 초청된

학생들은 법원 청사와 법정 등을 둘러본 뒤 공보 판사와 대화의 시간 등을 갖게 된다.

23일에는 광주지법에서 ‘사랑의 헌혈’ 행사가 열린다. 이날 행사는 오세우 지법원장과 법관, 직원 등이 참가한 가운데 오전 9시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이어 24일에는 ‘책과 꿈 나누기’라는 주제로 중고 도서 기증행사가 열리고, 26일에는 광주 남구 주

월동 ‘푸른숲길공원’에서 판사와

직원 10여명이 ‘사랑의 법차’ 행사를 연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57 INTERSAVE

고객의 성장을 위한 E-SERVICE입니다. 광주지법이 함께 합니다.

귀사의 사이트는 현재 살아 숨쉬고 있습니까?

고급 디자인, 저렴한 유지보수비용, 편리한 관리시스템

홈페이지 전문제작 10년, 전문업체에 믿기면 확실하니릅니다!

문의전화 082.350.2324

비오는 곡우

광주·전남 30~60mm

곡우(穀雨)인 20일 광주·전남에서는 다소 많은 양의 비가 내려 가뭄해갈에도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방기상청은 19일 “20일 광주·전남지역은 저기압의 영향을 받겠으며, 강한 바람이 동반한 비가 내릴 것”이라고 예보했다.

이날 비는 30~60mm로 다소 많은 양이 예상되며, 해안 지방을 중심으로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20일 오전 여수와 신안 등 전남지역 13개 시·군에 강풍특보를, 서해 남부전해상과 남해서부전해상에 풍랑주의보를 내릴 예정이다.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전날보다 다소 높은 12~16도, 낮 최고기온은 10도 가량 떨어진 16~18도가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2.5~5m로 높게 일 것으로 전망되며, 돌풍과 함께 천동·번개가 치는 곳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오늘 날씨

해물 05시 54분
해진 19시 09분
달금 02시 58분
달잠 14시 15분

축축한 단비

저기압의 영향을 받았으며 강한 바람이 동반한 비가 내리겠다.

광주	흐리고 비	15/18°C
목포	흐리고 비	15/18°C
여수	흐리고 비	15/17°C
완도	흐리고 비	16/17°C
구례	흐리고 비	14/17°C
해남	흐리고 비	17/18°C
장흥	흐리고 비	17/18°C
고성	흐리고 비	15/17°C
순천	흐리고 비	14/17°C
영광	흐리고 비	15/18°C
전도	흐리고 비	17/18°C
전주	흐리고 비	15/18°C
남원	흐리고 비	14/17°C
흑산도	흐리고 비	14/15°C

비단	풍향	파고	밀물	썰물
서해 남부	일보다	남서	2.0~4.0m	목포 10:32 22:53 16:30
면바다	남동~남서	2.0~5.0m		
남해 서부	일보다	남동~남서	2.0~4.0m	여수 05:57 18:15 12:17 --:--
면바다	남동~남서	2.0~4.0m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짜	날씨	기상
21(화)	날씨	21(화)
22(수)	날씨	22(수)
23(목)	날씨	23(목)
24(금)	날씨	24(금)
25(토)	날씨	25(토)
26(일)	날씨	26(일)

방(3천520억원)이 수도권(1천438억원)보다 배 이상 많다.

전남대에 대한 지원액은 59억6천만원으로 전국 4년제 대학 중 3위였다.

조선대는 57억7천만원으로 4년제 대학 중 4위였으며, 전국 사립대 중에서는 1위였다.

전문대는 서강정보대 34억5천700만원, 송원대 32억100만원 등이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전남대 60억·조선대 58억·서강정보대 35억

교과부 ‘교육역량강화’ 184개 대 지원

교육역량강화사업 선정대학 및 정부지원액

■ 4년제 대학

전남대	59억6천만원
조선대	57억7천만원
순천대	34억2천만원
목포대	33억4천만원
호남대	32억8천만원
목포해양대	19억5천만원
광주교육대	10억5천만원
목포기획대	8억9천만원

■ 전문 대학

서강전문대	34억5천만원
송원대	32억원
동강대	30억5천만원
목포과학대	30억2천만원
광주보건대	30억1천만원
전남과학대	26억7천만원
순천청암대	25억1천만원
조선이공대	23억1천만원
동아인재대	22억2천만원
전남도립대	18억2천만원
조선간호대	11억6천만원
기독간호대	10억2천만원

무등산 증심사지구 등산로

오늘부터 5월3일까지 개방

광주시는 증심사지구 정비사업으로 통제해왔던 무등산공원 증심사지구 일부 등산로를 ‘부처님 오신 날’ 주간을 맞아 20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일시 개방한다.

일시 개방되는 지난 1일부터 일시 폐쇄됐던 문빈정사, 증심사, 약사사

를 거쳐 가는 탑방로이다. 시는 석가 탄신